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44호

'2023 학교체육교육공모전 시상식'

'4년만에 열린 감사축제' 선생님과 학생, 가족이 모두 함께 즐겼다

이원만 스포츠조선 기자

2022년 카타르 이어 중동서 두번째

사우디, 2034 월드컵 개최 사실상 확정... '스포츠 워싱' 우려

이준희 한겨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스포츠과학센터,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포럼' 개최

홍성배 뉴제주일보 기자

넥슨 엔씨컴투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해 고용 확대

고용부터 선수단 지원까지... '장애인 같이 살기' 힘쓰는 게임 산업

김지윤 국민일보 기자

전남도, 장애 인식 개선 위한 3가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국 장애인체전 '드림패럴림픽' 운영... 장애 인식 개선 호평

이창우 뉴시스 기자

박성재 의원, 학생 운동선수 진로진학 선택권 저소득선수 지원 확대 필요

전남 학생 운동선수 30% 중도 포기 대책은

신영삼 쿠키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4년만에 열린 감사축제' 선생님과 학생,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긴 '2023 학교체육교육 공모전 시상식'

'학교체육교육의 현장에서 헌신하신 선생님께 이 상을 드립니다.'

긴 겨울 뒤의 봄 풍경이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 '2023 학교체육교육 공모전 시상식'은 그만큼 활기차고 떠들썩했다. 흔히 볼 수 있는 엄숙한 시상식장과는 사뭇 달랐다. 수상자로 참석한 선생님과 응원하기 위해 온 가족들과 지인들, 또 다른 주인공인 학생들 그리고 시상을 맡은 내빈들까지 모두 만면에 웃음을 띠 채 시상식을 즐겼다. 지난 3년(2020~2022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아쉬움을 한꺼번에 씻어내려는 듯 각자의 방식으로 시상식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웃음과 박수, 그리고 따뜻한 격려 속에 '2023 학교체육교육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내빈과 수상자 및 그 가족과 지인 등 약 120여명의 참석자가 몰려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학교체육진흥회가 주관하며, 스포츠조선과 대한축구협회, SK텔레콤이 후원하는 '2023년 학교체육교육 공모전'은 학교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한해 동안 현장에서 헌신한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체육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애써온 선생님에 감사의 뜻을 더욱 강조해 교권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국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 겸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오경식 SK텔레콤 부사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운동부운영 및 교원역량 강화' '여학생 축구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총 19개의 시상(개인 16명, 단체 3개교)이 이뤄졌다.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부문 대상에는 비금초 박준영 선생님과 안산부곡중 이찬복 선생님, 문정고 이은경 선생님이 선정됐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부문에선 김용민(이리서초) 양인제(아름중) 박주호(경기영상과학고) 선생님이 대상을 받았다. 학교운동부 운영·교원역량강화 부문에선 김정겸(서울연가초) 이정(연서중) 천향욱(배명고) 선생님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여학생 축구 활성화 부문(단체) 대상은 인천양지초, 광영중, 인헌고가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공모전에 제출된 여러 학교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요약한 동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에 담긴 학생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내빈을 포함해 참석자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오늘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한다. 또 전국의 선생님들과 지도자님들께도 감사 드린다"면서 "체육교육은 체력 강화 뿐만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번 주 교육부가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체육 활성화였다"며 학교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은희 이사장은 "체육수업은 단순한 수업에 그치지 않고 즐거움을 주는 교과다. 그렇게 얻는 즐거움으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면서 마음도 단련할 수 있다. 오늘 수상한 여러 선생님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여러분, 손흥민-이강인 다들 아시죠? 근데, 지소연도 아시나요? A매치도 100경기 나오고, 골도 가장 많이 넣은 위대한 선수입니다"라며 "오늘 수상자로 참석한 여학생축구 선수 중에서도 지소연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스포츠를 두루 접하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애를 써주시고 계신다"면서 "체육수업도 열심히 받고, 한국 축구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아시안컵이 곧 열리는데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열린 시상식이어서인지 수상 선생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축하를 받았다. 유모차에 탄 아기를 데려온 수상자도 있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온 선생님도 있었다. 선생님들은 가족들의 축하를 받고 무대에서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받았다.

사우디, 2034 월드컵 개최 사실상 확정... '스포츠 워싱' 우려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가 2034 월드컵 개최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1일(한국시각)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시아에서 2034년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라며 “건설적인 대화와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6개 대륙 연맹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축구연맹 평의회를 통해 유치국이 결정됐다”고 했다.

인판티노 회장이 언급한 아시아는 사우디를 의미한다. 2034년에 열릴 월드컵 개최에 유치 의향을 밝힌 국가 중 유일하게 남은 후보가 사우디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2022 카타르월드컵에 이어 중동 국가가 12년 만에 다시 월드컵을 열게 됐다. 아시아에선 세 번째 개최다.

우려도 있다. 사우디는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각종 인권 문제로 비판을 받는 곳이다. 특히 사우디는 최근 축구·골프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스포츠 워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정치 문제를 스포츠로 덮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은 오히려 사우디 쪽에 힘을 실었다. 국제축구연맹은 앞서 2030년 월드컵이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우루과이-아르헨티나-파라과이 등 유럽과 남미에 걸쳐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2034년 대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에서 열겠다고 했다.

발표 직후 사우디는 2034 월드컵 개최 의사를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이 공동 개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유치 신청 마감(10월31일)까지는 일정이 너무 빠듯했다. 월드컵 개최 신청을 위해서는 4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구장 14개가 필요하고, 최소 4개는 기존 구장이어야 한다. 사우디는 2027년 아시안컵 개최를 위해 이미 경기장을 4개 이상 확보했다. 반면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축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이들은 월드컵 개최를 포기했다.

사우디에서 월드컵이 열린다면, 축구계 판도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우디는 이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 네이마르(알힐랄) 등 대형 스타를 영입하며 축구계 큰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월드컵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새로운 축구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 단순히 월드컵만 개최했던 카타르와는 상황이 다르다.

동시에 스포츠 워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영국 가디언에 “국제축구연맹은 개최국이 인권 정책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하고, 심각한 인권 위협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과정을 중단할 준비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사우디가 2034년 대회를 개최한다면, 이 대회 역시 카타르 때처럼 겨울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카타르월드컵은 무더운 현지 날씨 때문에 11~12월에 걸쳐 열렸다.

제주스포츠과학센터, ‘양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송승천) 제주스포츠과학센터는 지난 3일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 양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포럼은 전국 7개 권역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체육 분야 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론 형성 및 자율적 양성평등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 중이다.

제주권역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제4차 포럼으로, ‘스포츠계 양성평등 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속 가능한 발돋움’이라는 대주제로 해 진행됐다.

지도자의 경력 단절 양성평등 문제점(문경애 도체육회 전임지도자), 운동부 내 성희롱·성폭력, 성인지적으로 훑아보기(문수연 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 학교운동부의 양성평등 인식 현황 및 제고 방안(김유니 도교육청 장학사), 양성평등, 속도가 아닌 방향과 지속성이다(백혜경 제주국제대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지도자들과 발제자 간 제주도내 양성평등 문화의 저변 확대에 대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신진성 도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스포츠계에서 당연시 생각했던 것들이 성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와 정보들을 통해 인식할 수 있었고 지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주체육의 발전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리고 확산돼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가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강지훈 센터장은 “제주스포츠과학센터가 제주도 전문체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터 선수단 지원까지... ‘장애인 같이 살기’ 힘쓰는 게임 산업

국내 게임업계가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면서 ‘같이 살기’ 실현에 힘쓰고 있다. 게임사들은 채용 확대와 스포츠 선수단 지원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가치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컴투스 그룹은 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컴투스홀딩스, 컴투스, 컴투스플랫폼 3사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컴투스워드’를 이번 달 내에 설립하고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울 예정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 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해 채용할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넥슨컴퍼니는 2011년 국내 게임사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은 ‘넥슨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했다. 고용된 직원들은 주로 게임의 웹서비스 모니터링과 고객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7명의 직원 중 약 47%에 해당하는 36명의 직원이 장애인으로, 중증 장애인 비율은 약 59%에 달한다.

엔씨소프트 역시 고객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엔씨서비스’를 운영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2019년에 장애인 직원 25명을 채용한 후 지속해서 채용률을 높였으며 사내에서 ‘네일 케어 룸’과 ‘도서관 서가 관리’을 위한 장애인 직원도 다수 배치했다. 또한 수년간 업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장애인 게임 접근성’ 옵션을 게임 디자인 랩(Game Design Lab) 부서 중심으로 연구 중이다.

넷마블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취지로 사회참여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019년 게임업계 최초로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했는데, 전문 지도자를 선발해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제공, 대회 출전에 필요한 훈련 용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넷마블문화재단에 속한 장애인선수단은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뿐만 아니라 넷마블문화재단은 정부와 함께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지원해 14년 동안 개최 중이다. 대회는 e스포츠대회 9종목(마구마구 리마스터, 모두의마블, 오델로 등)과 정보경진대회 16종목(파워포인트 엑셀, 로봇코딩 등) 등 총 25종목으로 치러지며, 종목별 우승자 총 25명은 장관상을 수여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9월 미국 비영리단체 에이블게이머즈와 게임 장애인 접근성 인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국내 게임 산업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는 장애인을 위한 직·간접 고용,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등을 예전부터 부단히 노력해왔다”면서 “이러한 활동은 사업의 방향성과 철학에 맞게 다양한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체전 '드림패럴림픽' 운영... 장애 인식 개선 호평

전남도가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 홍보관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드림패럴림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험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드림패럴림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스포츠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휠체어배드민턴, 보치아(중증장애인 종목), 쇼다운(시각장애인 종목) 3가지 체험 종목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은퇴선수 출신 강사가 직접 지도함으로써 장애인스포츠를 더욱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전남도는 또 드림패럴림픽 체험존과 함께 장애인스포츠 인권 등을 주제로 한 '장애인스포츠 인권 페스티벌' 홍보관과 '시각·청각·지체장애 체험관', '스포츠 그림 전시관'을 함께 운영해 수많은 관람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휴일 목포종합경기장을 방문해 드림패럴림픽을 경험한 순천 거주 한 관람객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그들의 고충을 더욱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프로그램 확대를 희망했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이번 장애인체전 기간 드림패럴림픽 체험 프로그램과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관 운영을 통해 많은 관람객이 장애인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림패럴림픽 체험 프로그램은 7일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남 학생 운동선수 30% 중도 포기 대책은

학생 운동선수들의 진로·진학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 운동선수들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해남2, 민주) 의원은 2일 열린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일반계고를 진학하는 학생 운동선수 비율이 30%가 넘어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의원은 “모든 학생운동선수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처럼 스포츠 스타로 성공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학생 선수들의 진로·진학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운동을 그만두고 제2의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운동선수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운동선수가 체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우수한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E-스쿨 인터넷 강의를 통해 최저학력을 맞추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시키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 질의에 앞서 3일부터 해남에서 열리는 ‘해남 미남축제’에 많은 방문과 홍보를 당부하는 등 깜짝 홍보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경남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발전 정보 교류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17723>

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0886635802440&mediaCodeNo=257&OutLnkChk=Y>

부산시 16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10518090672998>

남현희, 성추행 수사 시작 전까지 손 놓고 있었다...왜 7월 2일 이후 인정했나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10300051>

구미시청 씨름단과 주한미군 씨름선수단 합동훈련 실시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78057551207>

고성군, 유소년부터 일반부까지 세팍타크로 선수로 북적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1021252385890092>

SK 나이츠, 서울시 학생 선수에게 재능기부... 김수환·김건우 강사 참여

<https://mydaily.co.kr/page/view/2023110610152448327>

김제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07_0002511812&dID=10808&pID=10800

충남대 '스포츠 콤플렉스' 기공식...2025년 완공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6145500063?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